현 군수 불출마 선언…무소속 강세 이어갈까

곡성군수

민주 이상철 도의원·이재호 전 의원 경선
무소속 조상래·박정하·강대광 본선 준비

이상철

이재호

강대광

박정하

조상래

곡성군수 지방선거는 유근기 현 군수가 3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의 치열한 당내 경선을 펼쳐지고 있고, 3명의 무소속 후보가 본선을 준비중이다.

과거 곡성군수 지방선거에 무소속 돌풍이 거셌던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무소속의 선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지난 1~7회 지방선거 곡성군수 선거에서 조형래 군수(1회·4회)와 허남석 군수(5회)가 무소속 후보로 뛰어들어 3차례 승리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상철 전남도의원과 이재호 전 곡성군의원이 경선을 치르고 있다. 이상철 전남도의원은 탄탄한 조직력과 높은 인지도가 강점으로 꼽힌다. 오래 전부터 군수 출마의 뜻을 품고 지역민과 꾸준히 소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인구·환경·경제·관광·복지 등 여러 분야 현안을 살피는 등 지역 밀착형 행보로 바닥 민심을 다졌다는 평가다.

이재호 군의원은 곡성군의회 7대 의원을 지냈다. 그는 최근 곡성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만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전 의원은 18년 공직생활과 군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이 전 의원은 군수에 당선되면 봉급의 절반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후보로는 조상래 전 전남도의원과 박정하 전 곡성신문 대표, 강대광 곡성군 의원이 뛰고 있다.

조상래 전 전남도의원은 선거 경험이 풍부하고 넓다. 조 전 의원은 곡성군의회 6대 군의원 출신이며, 과거 민주당에서 탈당해 국민의당 소속으로 도의원 재선을 두 차례나 성공했다.

박정하 곡성신문 대표는 지난 22년간 지역 언론사를 운영하며 사회·문화·경제·정치 등 다방면에서 두루 능통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문화재학 박사로 곡성 지역사를 수십 년 동안 연구했다.

강대광 전 곡성군의원은 곡성군의회에서 5대부터 7대까지 연속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역 민심을 누구보다 잘 읽는다는 평가다. 옥과를 중심으로 탄탄한 지지기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현 군수 3선 도전…민주 경선 3인 단일화로 맞서

완도군수

'단일화 선언' 김신·신영균·지영배
신우철 현 군수·무소속 이옥과 격돌

김 신

신영균

신우철

지영배

이 옥

완도군수 선거는 3선을 노리는 현직 군수를 저지하려는 3명의 후보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된 상태다. '민주당 공천장이 곧 당선증'인 지역 정치 환경을 감안, 본선 경쟁보다 훨씬 치열한 예선인 민주당 공천 경쟁을 치르는 중이다.

김 신 전 완도군의원은 3번째로 군수 꿈을 꾸고 있다. 그는 출마 선언에서도 "3번의 낙선을 겪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완도사랑의 꿈, 장보고의 꿈을 이루고자 군수 출마에 나선다"고 밝혔을 정도다.그는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젊은 완도, 제2의 장보고 시대를 열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신영균 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은 완도군 미래해양사업단장을 지내는 등 완도에서의 공직 경험 등 30년의 행정 경험이 장점으로 꼽힌다. 완도뿐 아니라 전남도와 국무총리실 등을 오가며 쌓은 중앙·광역 행정 인맥도 완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필하고 있다. 그는 마을단위 광역화 스마트요양원 신설 등의 공약을 제시하며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다.

지영배 전 전남도 국장은 "완도를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만들고 행정의 질을 높이며 연륙교 건설, 노화도 물 부족 해결 등에 힘을 쏟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완도는 지역경제 쇠퇴, 지방소멸 위기 등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중앙과 광주·전남 등에서 공직생활을 거친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 3명의 후보는 최근 단일화를 선언하고 신우철 군수의 3선 저지에 나선 상태다.

3인 후보 간 연합에 맞서는 신우철 군수는 3선을 노리는 수산행정 전문가다.

특히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구간 조기 착공,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 건설, 노화~소안 간 연도교 건설 등을 조속히 추진해 완도로의 접근성 개선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옥 후보는 무소속으로 민주당 후보와의 본선 경쟁을 치르겠다며 완도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kwangju.co.kr

민주당 경선 '4파전'…무소속 4명 '호시탐탐'

구례군수

김순호·박양배·신동수·왕해전
김송식·이창호·전경태·정현택

김순호

박양배

신동수

왕해전

김송식

이창호

전경태

정현택

구례군수 지방선거는 김순호 현 군수를 포함해 4명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치열한 경선을 벌이고 있고, 무소속 후보도 4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밭을 다지고 있다.

민주당 예비후보 김순호 현 군수는 군정에 대한 해박함과 안정적 운영, 강력한 추진력이 강점이다. 섬진강과 지리산 등을 활용한 관광도시 건설에 매진하면서 섬진강변 관광 자원화에 힘썼다.

박양배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선거 후유증이 심했던 지역의 갈등을 풀어내고 모두가 하나인 구례, 관광 구례의 명성 재현으로 '에코 관광도시' 구현, 섬진강 수해의 빠른 피해배상 등을 내걸었다.

같은 당 신동수 구례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구례군청년연합회장을 지내면서 입지를 넓혔다. 40대 새바람을 주창하면서 구례 관광대학 설립 등 관광과 경제를 위한 열정에 혁신까지 가미한 지도력을 보일 계획이다. 왕해전 구례포럼 대표는 광의면 천변마을에서 태어나 한국외대를 다니다 학생운동으로 제적된 후 야학과 노동운동 등을 펼치다 투옥되기도 했다. 수해 피해복구 등 구례의 현안을 책임질 지도자로 자평하고 있다.

무소속 김송식 구례군 의원은 재선 군의원으로 군의회 의장과 구례라이온스클럽 회장 등을 지냈다. 이창호 전 전남도의원은 농민이면서 군의원과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정현택 행복국가포럼 전남구례군지회 대표는 구례군청 지방서기관을 지냈다. 또 전경태 전 구례군수도 무소속으로 본선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민주당 경선 2명 압축…국민의힘·무소속 도전

진도군수

민주 경선 박인환·이재각 '2파전' 가닥
국민의 힘 김정연·무소속 김희수·이양래

박인환

이재각

김정연

김희수

이양래

진도군수 선거는 이동진 현 군수가 3선 연임 제한으로 불출마하면서 선거 초반 입지자들이 대거 몰렸지만, 민주당 공천 심사를 거치면서 경선 후보자가 2명으로 압축되는 등 2파전 구도가 가닥을 잡은 상태다.

민주당은 경선 후보자로 박인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과 이재각 전 충북지방병무청장을 결정했다.

박 전 위원은 지난 1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일찌감치 출마 의지를 다지다가 3월 "소통하는 진도, 살맛나는 진도 건설에 역량을 쏟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위원은 진도실고 재학 중 지방공무원 9급으로 시작, 선거관리위원회 부이사관(3급)으로 퇴직했다. 그는 진도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보조사업도 공모를 받아 운영키로 하는 등 소통에 방점을 찍는 공약도 발표했었다.

민주당 경선에 뛰어든 이재각 전 충북지방병무청장은 "미래 대비가 확실한 보배의 섬, 진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육군 준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까지 38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이 전 청장은 "대한민국에서 꼭 가봐야 하는 곳, 기억에 남는 곳, 누구나 머물고 싶은 자연 치유의 섬 진도를 만들고 싶다"며 농·수산업 6차 산업화' 등 5대 분야 역점시책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 힘 후보로는 김정연 전국산업재해장애인협회 진도지회 자문위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김희수 전 진도군 농산유통과장과 이양래 전 진도군 부군수 직무대리는 무소속으로 군수 선거에 뛰어들었다.

김 전 농산유통과장은 진도군에서의 36년 공직생활을 통해 지역 정서를 잘 알고 있다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 전 진도부군수 직무대리도 30년의 공직 경험을 통한 진도 발전을 자신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